

2024. 5. 17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

청년정책반장

강선미

02-2133-6575

청년정책팀장

정소진

02-2133-6577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담당자

김지윤

02-2133-4305

서울시, 190만 뷰 돌파 청년정책 웹드라마 '서울에 삽니다' 시즌2 17일 공개

- 총 5편·등록금 마련, 취업 준비, 결혼 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민 다뤄 호응 기대
- 하반기 시즌2+ 추가 제작 계획·6월부터 시나리오 공모, 배우 공개 오디션 진행
- 시, “청년들의 높은 호응으로 시즌2 제작·청년정책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추진”

- 지난해 유튜브 누적 조회수 19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서울시 청년정책 웹드라마 <서울에 삽니다>가 시즌2로 돌아왔다.
- 서울시는 청년정책 웹드라마 <서울에 삽니다> 시즌2를 5월 17일(금)부터 서울시 청년정책 공식 유튜브 채널 ‘청년행복프로젝트 (youtube.com/c/youthseoul)’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.
- <서울에 삽니다>는 취업·주거·자산 형성 등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거나 겪었을 고민을 정책과 접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다.
 - 2023년 9월부터 총 5편에 걸쳐 시 청년정책 공식 유튜브 채널 ‘청년행

북프로젝트'에 공개된 <서울에 삽니다>는 3달이 채 되지 않아 유튜브 조회수 190만 회를 돌파했다.

- 유튜브에서의 호응에 힘입어 2023년 12월부터는 (주)딜라이브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에서도 서비스 중이다.

□ 시즌1과 동일하게 총 5편으로 구성된 시즌2에서는 등록금 마련, 취업 준비, 결혼 자금 등 청년들이 생애주기별로 가질 수 있는 고민을 더욱 현실감 있게 담았다. 이에 시즌2에서는 서울 영테크, 청년수당, 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,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등의 서울시 청년정책이 소개될 예정이다.

- 시즌1에서는 청년취업사관학교, 미래 청년 일자리, 청년 마음건강 지원, 청년안심주택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정책이 소개되었다.



서울시 청년정책 웹드라마 <서울에 삽니다> 시즌2 1화 주요장면

□ 시는 <서울에 삽니다> 시즌2 공개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시즌2+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.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생생한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참여사례를 담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<서울에 삽니다> 시즌2+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를 추진하고 시즌2+ 출연 배우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도 개최할 예정이다.

- 시즌2에는 시즌1에 캐스팅된 배우 4명이 계속 출연한다. 시즌1 당시 진

행된 배우 공개 오디션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으며, 이 오디션을 통해 주연으로 발탁된 배우 손상준과 강주연은 실제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인지도와 호응이 높은 유명인,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기획·제작하고 있다.

○ 지난해 개그우먼 엄지윤, 배우 권혁수, 크리에이터 승헌쓰와 협업한 데 이어, 올해는 가수 브라이언을 섭외했다. 가수 브라이언이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만나 서울살이와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의 영상으로,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7만 뷰를 기록했다.



□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“여러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웹드라마 주인공의 삶에 공감하며 높은 호응을 보여준 덕분에 올해 두 번째 시즌을 제작하게 되었다. 청년들이 콘텐츠를 통해 유용한 정책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.”며 “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